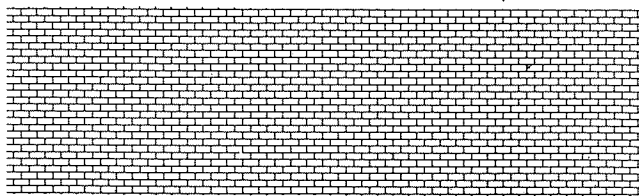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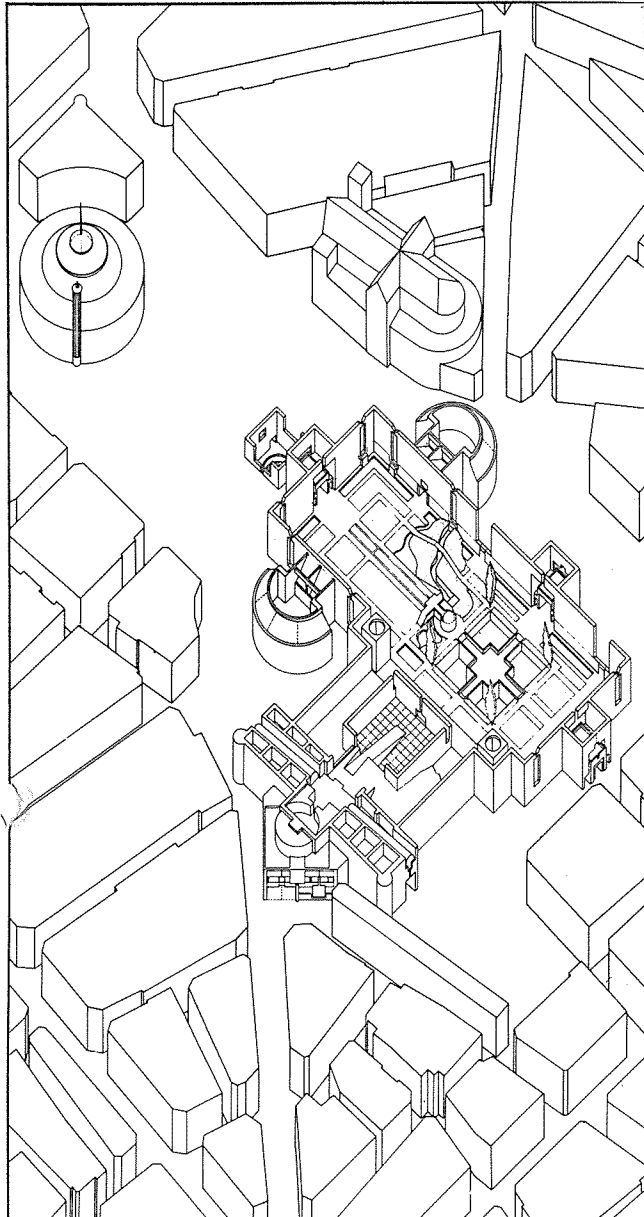


月間建築情報



1981. 3. 11 ~ 4. 10



住宅 146萬家口, 86년까지 건설키로

民間賃貸住宅 企業化유도, 세제 금융지원

정부는 82년부터 시작되는 5차 5개년計劃期間(82~86년) 중 모두 20조9천64억원(80년 불변가격)을 들여 총 146만 가구를 건설, 住宅普及率을 현재의 75%에서 78.6%로 높힐 계획이다.

5차 5개년 주택건설 계획 (단위 만가구)

구분	82	83	84	85	86	계
공공	10	11	11	12	13	57
민간	17	17	18	18	19	89
계	27	28	29	30	32	146

이를 위해 현재 一般財政의 0.5% 수준에 머물고 있는 公共住宅投資를 86년까지 2%수준으로 해마다 높히고, 일정규모 이하의 住宅 및 宅地를 실수요자가 매입할때에 한해 稅金을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民間의 賃貸住宅을 陽性化, 多住居 单独住宅등도 감면 取得稅 및 登錄稅, 不動産所得稅 등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賃貸住宅건설이 앞으로는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民間建設로 전환하기 위한것이다.

不動産投機가 재현되면 土地去來許可制 및 申告制를 사용하고 土地仲介業者에 대한 資格制 및 營業許可制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土地去來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土地管理秩序를 확립하기 위해 土地情報電算化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행 등기제도가 物的編成主義로 돼있어 개인소유 부동산 총량이 파악되지않은 점을 감안, 이를 人的編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울의 騒音公害는 重態...標準研 조사

이전해야할 學校·病院 많아

서울시가 최근 騒音規制地域 선정과 대책 마련을 위해 韓國標準研究所(忠南大德研究団地)에 의뢰, 학교 44, 병원 10, 아파트 4, 버스중점부근 6개소 등 모두 64개 지역을 표본으로 추출해 측정한 騒音度調査分析결과, 번두리 주택가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域의 屋外騒音度가 대부분 60~80db(데시벨), 幹線道路변은 보통 地下鉄車內騒音도와 비슷한 75~80db이상으로 국제표준기구(ISO)의 권고값인 55db을 훨씬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별 소음현황은 다음과 같다.

△ 學校=조사대상 44교중 84%인 37교가 ISO 권고값 55db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특히 이중 간선도로에 가까운 18교는 65~75db에 이르고 있으나 立地여건상 遮音施設의 여지가 없어 장차 이전해야할것으로 판단됐다.

△ 버스중점부근=인근주택가의 소음도는 대체로 65~65db이나 夜間에는 차량정비등으로 소음도가 더 높아진다.

△ 病院=10개 종합병원의 도로변은 대체로 70db내외, 건물 중심부근은 60~65db이며 조사대상의 80%가 소음이 심해 遮音壁이나 室内吸音壁등 방음처리가 필요하다.

△ 아파트団地=지역특성에 따라 차가 많으나, 강남지역 4개 단지는 중앙부가 50~60db인데 비해 도로변은 70db 이상이

다.

20db은 나무잎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 30db은 조용한 住宅의 방, 50db은 조용한 사무실, 70db은 전화벨소리, 80db은 지하철 차내소음 정도가 된다. 일반적으로 30db이 넘으면 절서에 영향을 주고, 40db이상은 불쾌감, 50~55db이상은 회화 및 수면방해, 70db이상은 난청, 100db이상이면 작업능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公共住宅 일정기간 轉売禁止, 不実施工엔 体刑도 住宅建設促進法改正案을 閣議에 상정

建設部는 3월13일 住宅公社나 地方自治団体등 공공기관이 지어 분양하는 住宅은 분양후 일정기간(최고 5년) 안에 사업주체의 동의없이 팔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住宅建設 促進法改正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轉売禁止期間은 최고분양일로부터 5년 범위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되, 공공기관에서 지은 賃貸住宅도 같은 기간동안 轉貸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분양 入住者가 轉売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買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住宅資金의 調達을 위해 國民住宅債券資金, 政府出捐金 및 예탁금, 복지주택복권자금, 입주자저축차관, 국민복지연금 등을 재원으로 國民住宅基金을 설치 운영하되 이를與信限度對象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이 개정안은 건설기준에 맞지 않는 施工으로 입주자에게 손실을 끼친 事業者를 1천만원이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서울住宅價 17년새 27~2,천배로 올라 土開公-48개洞 標本調査결과

3월 14일, 土地開發公社가 서울도심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15개洞, 5~10km사이의 16개洞, 10~15km 사이의 16개洞 등 48개洞을 표본추출하여 住宅街 上級地를 기준의 地價調査 결과에 따르면 지난 63년부터 80년까지 17년 사이에 禾谷洞은 평당 2백원에서 40만원으로 무려 2천배까지 뛴것을 비롯, 舍堂洞·鶴洞은 1천6백7배, 麻谷洞·狎鷗亭洞은 1,천2백50배, 上溪洞은 1천배로 올랐다.

이해 비해 같은 기간동안 南倉洞은 28배, 新門路 1가는 27배, 厚岩洞은 30배 상승에 머물렀다.

한편 都心으로부터 5km 이내지역의 地價는 평균 86배 오른데 비해, 5~19km사이에는 평균 3백65배, 10~15km사이에는 평균 6백 34배까지 뛰어, 번두리 지역일수록 地價上昇幅이 컸으며, 이에 따라 서울地域의 地價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水準으로 접근했다.

無許 集團建物 陽性化를 검토 全大統領, 釜山리셉션에서 언급

全대통령은 3월16일 부산에서 열린 제12대 대통령취임 축하리셉션에 참석, 즉석 인사말 가운데서 釜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無許可판자집은 정부가 그동안 철거하지 않은것이 잘못이지만 정부의 묵인아래 장기간 거주해온 것은 일괄해서 陽性化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또 釜山의 特定街區整備地區로 묵인곳도 해제하도록 검토하고, 金海에서 釜山으로 편입된 地區의 田園都市 開發建設은 住民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不実·二重分讓등 聯立住宅 일제단속 — 治安本部

14명 구속, 179명 불구속 수사

治安本部는 2월15일부터 聯立住宅建築과 分讓을 둘러싼 비위사실 일제단속에 나서, 전국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聯立住宅 施工業者 1백93명을 적발, 이중 14명을 구속하고 1백79명을 建築法 위반등 혐의로 立件, 수사중이라고 3월16일 발표했다.

이들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 당국의 허가없이 設計 및 用途를 변경한것 19건, △ 竣工檢査 받지않고 入住시킨 행위 37건, △ 無許可建築 23건, △ 不実工事 25건, △ 二重分讓 8건, △ 不法免許대여 5건 등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정화차원에서 無住宅庶民을 괴롭히는 일체의 不法建築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이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市, 4大門안 建物높이制限 再調整

乙支路入口 25층까지, 古宮부근은 5층까지 都心 15개 學校자리엔 건폐율 33%까지

서울시는 3월23일 “4大門안 建物높이制限 再調整案”을 마련, 79년 4월부터 15층이하로 제한해온 신축건물의 높이를 지역별로 세분해 롯데호텔을 중심으로한 乙支路入口 일부지역은 최고 25층까지, 그밖의 지역은 블록별로 20, 15, 10, 5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는 都市美觀을 살리고 土地利用度를 높이는 한편 민원을 풀기 위한 것으로, 곧 建設部長官을 비롯, 17명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首都圈審議委員會」의 심의와 상부의 裁可를 받는대로 확정 시행된다. 이 高度 再調整案은 市立産業大부실 首都圈問題研究所의 10여명 都市計劃專門家들에 의해 마련됐다.

地域별 建物높이는 다음과 같다.

▲ 乙支路入口 로터리 주변 4개 블록이 25층까지 ▲ 이 지역을 둘러싼 茶洞·小公·明洞 1~2가·北倉·南倉洞일부지역·西小門·水下洞등 9개 블록과 鐘路 4가~忠武路 5가 사이의 세운상가 東쪽 6개 블록이 20층까지 허용된다.

또 ▲ 鐘路·清溪川·乙支路·忠武路등 都心の 東西를 관통하는 幹線道路에 世宗路에서 鐘路 5가 사이의 南北貫通幹線道路로 둘러싸인 지역은 15층까지, ▲ 이밖의 4大門안·지역은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 德壽宮·宗廟·秘苑·社稷公園 등 古宮과 齊洞·嘉會洞 일대 韓屋保存地區 주변, 南大門·東大門·獨立門등 文化財주변과 현 市庁부지에 대해서는 5층이하로 제한된다.

이같은 建物높이 再調整案은 北岳과 南山 꼭대기를 軸으로한 南北間 스카이라인 및 東大門과 獨立門 사이를 軸으로한 東西間 스카이라인 등 都市美觀을 최대한 고려했다.

학교이전부지는 다음과 같다.

78년부터 江南區로 옮겨갔거나 옮겨갈 예정인 前서울高자리 등 都心地域 15개 學校의 부지에 綠地空間을 확보하기 위해 전

체 부지의 1/3까지만 建物新築이 허용된다.

또 건축허가기준도 대폭 強化해 商業地域은 건폐율 33%(건축법 60%), 容積率 6백 % (건축법 1, 천 %) 이하로 제한된다. 住居地域은 建蔽率 33%(건축법 50%), 容積率 200%(건축법 300%) 이하로 제한된다.

上下水道 등 都市整備 잘된 지역

再開發地区에서 해제 - 서울시

3월25일 서울시에 따르면 再開發地区내 住民들의 민원올해 소하기 위해 再開發地区로 지정된 지역중 上下水道 및 道路 등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나 私有地上의 허가건축물이 밀집돼 있을 때에는 再開發地区에서 해제시켜주기로 했다. 또 現在改良을 시행한 지역은 이를 양성화시켜 地籍整理 등 경과조치가 끝난 후 일반지역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再開發地区중 公有地가 많아 개인으로서서는 불하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再開發地区로 존속시키되,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事業施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80년 10월20일 再開發事業과 無許可建物 整備을 위한 改善조치 이후 再開發地区내 3백63건의 無許可建物の 改補修를 허용하고 15,753개소의 무허가 業所를 양성화했다.

建築景氣 浮揚方案 강구

申부총리는 3월26일, 현재의 通貨供給이 계획대로 집행돼 유동성 과잉의 염려는 없으며 현재의 물가 안정세 등으로 보아 강력한 회수대책의 실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들어 通貨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지난 3월20일 현재, 작년말 대비 總通貨는 4%, 통화는 0.3%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의 景氣動向에 대해 여러가지 指標로 보아 점차 回復局面에 접어들고 있으나 고용측면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내에서 建築景氣를 浮揚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겠다고 말했다.

政府工事 早期發注 불구 建設景氣는 아직도

民間部門建築 34.3% 감소

3월27일 經濟企劃院이 발표한 지난 2月中 国内建設工事 및 機械類 受注動向에 따르면 公共部門工事의 早期發注로 建設受注 규모가 1월보다 38.5% 늘어난 1천 9백48억원 (170개 대규모 건설업체 실적기준)을 기록했으나 이중 民間部門의 建設工事實績은 1월에 비해 오히려 34.3%나 감소한 2백7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月中 建設工事受注 활동은 前月보다 70%나 증가한 公共部門工事의 發注에 힘입은 것으로 建設受注總額의 構成比重도 자연 公共部門이 절대 우위인 86% (1,67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国内建設工事動向은 자연 民間部門의 主種인 建築工事は 부진한 반면, 公共部門인 土木工事は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영, 올들어 2月末 까지의 建設受注總額 3천3백55억원 가운데 土木工事部門은 前年同期보다 370.3%나 증가한 2천3백15억원을 차지한 반면 建築工事受注實績은 前年同期對比 21.5%가 줄어든 9백91억원이다

또한 2月末까지의 建設工事受注總額을 발주자별로 보더라도 民間部門은 6백84억원으로 前年同期對比 29.3%가 감소했으나 公共部門은 무려 2백30.5%가 늘어난 2천6백6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光明市 등 10개市 新設

7월부터 光明市 · 松炭市 · 東豆川市 · 太白市 · 井州市 · 南原市 · 錦城市 · 永川市 · 金海市 · 西歸浦市

입법회의 내무위는 3월27일 과대읍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처하고 지역별 據點都市와 대도시 주변의 衛星都市를 개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10개市를 설치하는 내용의 「光明市 등市設置와 郡管轄區域 변경에 관한法律案」을 의결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법안은 3월31일 입법회의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생기는 市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설치목적)

△ 光明市 = 京畿道始興郡所下邑 일원 (위성도시 육성에 의한 서울시 人口集中 억제)

△ 松炭市 = 京畿道平澤郡松炭邑 일원 (牙山灣과 인접한 경기 남부지방의 商業都市 개발)

△ 東豆川市 = 京畿道楊州郡東豆川邑 일원 (漢水以北의 商業中心地 개발)

△ 太白市 = 江原道三陟郡黃池邑 · 長省邑 일원 (鎭山都市 개발)

△ 井州市 = 全北井邑郡井州邑 일원 (농산물 유통과 嶺湖南 연결)

△ 南原市 = 全北南原郡南原邑 일원 (위와 같다)

△ 錦城市 = 全南羅州郡羅州邑 및 柴山浦邑 일원 (柴山江 개발계획과 관련한 全南 南部中心都市 육성)

△ 永川市 = 慶北永川郡永川邑 일원 (경북 東北部 낙후지역 개발)

△ 金海市 = 慶南金海郡金海邑 일원 (부산시에 인접한 衛星都市의 육성에 의한 부산시 人口集中 억제)

△ 西歸浦市 = 濟州道南濟州郡西歸邑 및 中文面 일원 (제주 觀光開發과 관련한 한라산 남부지역 개발)

慶南道庁 昌原으로 이전, 80년 7월부터

유치경쟁 드디어 매듭

입법회의 내무위는 3월27일, 현재 釜山에 있는 慶南道庁 소재지를 오는 83년 7월 1일부터 昌原市로 정하는 내용의 “慶南道事務所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法律案”을 의결했다. 그동안 慶南道庁誘致를 둘러싸고 馬山 · 晋州 · 蔚山市가 유치경쟁을 벌여왔다.

太陽熱을 저장하고, 옮길 수 있다

日서 合成物質 개발, 煖房 등에 곧 實用化

일본 京都大 공학부의 吉田교수팀은 빛을 받으면 그 에너지

를 흡수 저장하는 성질을 가진 “놀볼나지엔”이란 결정물질을 합성하는데 성공, 太陽에너지의 利用度가 높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結晶物質은 1kg당 92kcal을 저장하는데 이것은 1kg의 물을 8°C에서 100°C까지 올릴 수 있는 熱量이며, 1m²의 수평면적에 닿는 태양열의 1년분인 8만 5천kcal 전후까지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열은 극히 적은 양의 은축매로 간단히 열을 내며, 이때의 열에너지는 전기로도 변용이 가능해, 冷煖房은 물론 소규모 발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해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 운반시에도 열손실이 없어 사막에서 태양에너지를 흡수, 운반할 수 있어 태양에너지의 수출입도 가능하다는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의 원료는 원유속에 있는 「징크로펜타지엔」인데 이의 실용화는 용이하며 은축매 사용에 있어서도 부반응이 없고, 결정체도 열을 방출하고나면 완전히 원상으로 환원되는 반영구체로 이의 실용화는 멀지않은것으로 보인다.

서울都心 4개 再開發地区, 上半期 着工

清進洞 · 都染洞 · 公平洞 · 會賢洞

서울시는 올해 上半期에 清進洞 新新百貨店 일대 등 4개都心地 再開發地区的 再開發事業을 시행하고, 下半期에 小公洞 97일대 등 6개地区事業을 시행키로 3월30일 확정했다.

이번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신신백화점이 헐리고, 청진동 부근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清進洞地区 = 청진동100일대 신신백화점자리등 대지3, 천평에 地下 4층 地上15층의 건축물을 第一銀行에서 신축.

△ 都染地区 = 도염동95일대 대지 1천1백 14평에 주민들이 地下 4층 地上 10층의 연면적 7천5백 62평의 건축물 신축, 1~7층은 사무실, 8~10층은 아파트로 사용할 예정.

△ 公平地区 = 公平洞98 일대 대지1천1백평에 7층고 대 한감리회유지재단이 지하 3층 地上12층의 業務用建物を 신축.

△ 會賢地区 = 회현동78 일대 旧벨기에 대사관자리 3,천 여평에 商業銀行이 地下 4층 地上15층의 業務用建物を 신축.

赤外線으로 建物透視, 斷熱材검사

에너지公團 - 高性能 特殊카메라 導入계획

에너지管理公團은 斷熱材使用量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特殊赤外線카메라를 스웨덴으로부터 도입, 動資部の 위임을 받아 각 大型建物を 조사, 강화된 단열재 의무량 사용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일명 IR카메라로 불리우는 이 高性能 特殊裝備는 대당5,천만원 이상으로서 건물 벽면을 透視, 사용된 단열재의 두께를 정확히 측정해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管理公團이 이 장비를 도입키로 한것은 단열재의 사용의무기준이 종전 25mm에서 50mm로 배가되었으나 실제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斷熱材 使用確認은 영수증으로 가름하도록 했으나 건

축주들이 이를 이행치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장비가 도입되면 建設部는 動資部에 특정빌딩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동자부는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에 檢査業所를 위임하게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의 대형건물의 에너지관리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고 건설부와 동자부의 협의아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住宅賃貸借保護法 시행후 伝賃價 폭등

1년내엔 못올려 한꺼번에 올려내놔

3월 5일부터 住宅賃貸借保護法이 시행된 이후, 전세희망자는 급증하고, 전세값만 급등하는 현상을 빚어지고 있다.

이 법은 임대차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임대차계약만으로 동기의 효과를 갖게하여 전세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들은 이法 시행에 따라 전세기간이 길어져 부동산 경기가 꺼리고, 6개월마다 약 20%씩 올려받던 전세금을 1년분을 한꺼번에 앞당겨 올려받는 경향이 크게 작용,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81년도 建設工事 都給限度額 발표

건설부 海外進出業체 급성장, 大型化추세 뚜렷

4월 1일 건설부에 의하여 전국 5백10개 建設業체의 81년 建設工事都給限度額이 발표되었는데, 도급한도액 3.천 억원을넘는 업체가 80년의 1개사에서 4개사로, 1,천 억원 이상 3천 억원 미만이 4개사에서 10개사로 각각 늘어, 계속 大型化 추세를 보였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現代建設(7,010억원), ② 東亞建設産業 ③→② 3,803억원), ③ 大林産業(②→④ 3,666억원), ④ 韓國重工業(신, 3,347억원), ⑤ 漢陽住宅(③→⑤ 1,957억원) ⑥ 大宇開發(⑤→⑥ 1,690억원), ⑦ 三煥企業(⑦→⑦ 1,504억원), ⑧ 美隆建設(⑥→⑧ 1,315억원), ⑨ 三湖住宅(⑨→⑨ 1,304억원), ⑩ 漢拏建設(⑩→⑩ 1,237억원)

自律防災능력 갖추면 消防檢査 면제

내무부 - 消防檢査 改善指針 시달

內務部는 4월 3일, 市場·百貨店·工場旅館·飲食店등 特殊建築物중 自律防災能力和 일정요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는 消防公務員의 消防檢査를 면제키로 했다.

內務部는 이날“消防檢査 改善指針”을 전국 市·道에 시달, 앞으로 特殊建築物중 法定 消防施設이 완비되어 있고 消防設備技師 등을 防火管理者로 선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 檢査能力을 갖고 있으면, 자체 消防檢査器具를 확보 △ 月 1회 의 火點點檢, △ 3개월마다 1회씩의 機能點檢, △ 年 1회 의 定期點檢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消防公務員의 消防檢査를 면제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消防檢査公務員의 자격을 규제, 지금까지는 消防署長이 임의로 지정하는 消防公務員이 검사를 실시해오던것을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專門教育을 받은 消防公務員중 시험합격자에 한해서만 검사자격을 주도록 했으며, 검사

착안표도 표준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자체 消防檢査能力이 없는 特殊建築物에 대해서는 特殊消防檢査를 강화, 火災予防에 行政力을 집중투입토록 했다.

大邱·仁川과 10개 新設市에 土地投機봉쇄 基準地價地域으로 告示, 造作, 投機등 집중조사

내무부는 81년 7월부터 直轄市가 되는 大邱·仁川지역과 새로 市가 되는 京畿道 始興郡所下邑등 10개 지역을 不動産投機억제를 위한 基準地價告示對象地域으로 지정, 地價를 묶고 不動産投機合同調査班을 이곳에서 투입, 4월 6일부터 地價造作投機 稅務調査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市昇格에 따라 편입되는 地域과 隣近地域의 開發制限區域이나 綠地地域을 풀지않고 이미 정해진 都市計劃을 당분간 바꾸지 않는다.

아파트分讓價 上限 平당1백5만원

서울市 25평이상의 아파트 自律價格制 일단 보류

서울시는 4월 4일, 올해 住宅建設業체들에 적용할 아파트分讓價格의 평당 최고가격을 작년의 90만원보다 16.6%나 올린 1백5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도매물가상승예상을 25%, 油價 및 公共料金 인상예상을 15%, 임금상승을 14%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당 分讓價格이 최고 1백5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專用面積 25평이상의 아파트는 附加價值稅를 물게되기때문에 7~8만원의 부가세가 가산되어 최고분양가격은 112만원~113만원선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당국자는 당초 住宅建設業체들의 주택건설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용면적기준·25평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自律價格制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로 인한 住宅價格의 연쇄인상을 우려 실시를 보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木材自給率 해마다 떨어져

70년 21%에서 80년에서 17%로

4월 4일 山林庁에 따르면 지난 80년 1년간 우리나라의 原木輸入은 6,737,000m³인 8억 5천만달러로서 前年對比 70년 초보다 5~6배이상 증가하고, 需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木材自給率도 70년 21%에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 80년말 현재 13%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自給率이 저조한데다 산불, 병충해 등 자연손실과 도벌등에 산림훼손으로 아무리 심어도 나무는 伐齡期(50~100년)가 길어 수용충당이 힘들고 결국 2천 년대는 木材의 고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立木蓄積量은 현재 15m³/ha에 불과하며 그것도 20년 미만의 幼木이 87%이며 그나마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어 木材自給度 및 蓄積量은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景氣, 완만한 回復勢 보여

建築許可面積은 43.7%가 줄어

韓國銀行이 4월 6일 발표한 2월중 景氣予告指標는 前日의 0.6에서 0.7로 한단계 올라서 미폭이나마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월의 경기에고지표는 6월계의 경기를 나타낸다.

輸入은 前月の 5.5%증가에서 14.5%로 늘어났고, 製造業景氣와 관련깊은 일반기계류 輸入도 前月の 4.2% 감소에서 12% 증가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2月中 建築許可面積의 증가율은 -43.7%로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景氣回復을 선도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建築景氣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共同受注·施工, 컨소시엄 형성 情報交換

제5차 韓·日 建設協力協議會서 합의

大韓建設協會 주최로 4월 6일 韓·日建設協力協議會 5次會가 열렸는데, 이 총회에는 韓·日建設業界 重鎮人士 1백여 명이 참석, 세계 건설업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公信力 제고를 위해 양국 건설업자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플랜트 工事의 共同受注 및 施工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적인 建設技術交流의 차원을 넘어 일본 및 구미 제국의 플랜트輸出情報 입수와 개발도상국의 플랜트 工事入札·施工 등을 양국 건설업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로 하고, 이의 세부적인 방안은 대한건설 협회와 일본해외건설협회가 협의, 구체화하기로 했다.

韓·日建設協力協議會는 지난 77년 서울서 창립된 순수 민간건설기구로 건설을 통한 韓·日間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국 업자가「조인트벤처」에 의해 시행한 海外工事は 총 14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海外에서 81억2천7백만달러의 受注高를 기록했으며 日本은 24억4천만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서울시는 80년 江南地域 아파트用地,

26萬평 취득세 50억원 취소

서울시 - 고유목적에 사용못한 정당사유 인정

서울시는 80년 12월중순, 法人의 非業務用土地라는 이유로 取得稅를 重課조치했던 江南地域 아파트用地 44만평중 55%에 해당하는 26만평에 대한 약 50억원의 세금을 부과 철회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業체가 아파트建設을 위해 취득한 土地를 6개월 이내에 아파트建設을 하지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를 非業務用土地로 간주하지 않기로한 地方稅 再調査請求審議委員會의 판정에 따른것이다.

4월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재조사청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말부터 약 2개월동안 취득세가 부과된 44만평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26만평에 대해선 취득후 6개월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는 것이다.